

Petrochina, 석유기업 순이익 2위

7.2% 감소한 9조2000억원 달해 ... 1위 ExxonMobil은 10조5000억원

중국 최대의 국영 석유기업 PetroChina의 순이익이 세계 석유기업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양성만보(羊城晚報)에 따르면, PetroChina는 2009년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액이 4152억위안(75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7% 급락했지만 순이익은 505억위안(9조2000억원)으로 7.2% 감소하는데 그쳐 ExxonMobil의 85억달러(580억위안)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PetroChina는 상반기에 석유제품의 가격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실시함으로써 정유 부문이 2007년 상반기 598억위안의 적자에서 171억위안의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하반기에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원탐사와 개발에 주력하고 동남아시아 연해지역과 서남지역의 정유사업을 가속화해 정유 부문이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우지핑(周吉平) PetroChina 부회장 겸 총재는 상반기 사업보고 발표회에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이라크 유전의 2차 경쟁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2>